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4.03

#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 Weekly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 @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경제/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RA 강혜성 02-3779-3475, hs.kang@sangsanginib.com


상상인증권

# CONTENTS

##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주식 6

2. 채권 16

3. 외환 17

4. 원자재 19

5. 부동산 21

# Summary

##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 전쟁으로 가리워진 기업 펀더멘털, 금리 그리고 달러의 복합 관계

**4월 1주차 기대감과 리스크의 충돌**

4월 1주차 글로벌 금융시장은 종전과 타격 지속의 혼돈 속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주간 흐름을 시현했다. 유가와 금리의 하락 기대감과 정치 리스크의 충돌이라는 형국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곧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상황에 처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에 해당한다. 2월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어느새 5주차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은 여전히 종전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엄혹한 현실 인식을 강화시킨 이벤트였다. 이란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압박 전술임을 알 수 있으나, 트럼프의 의지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예측 불허의 언행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곧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 중이다. 주식과 채권 가격 모두 상승세에서 연설 이후 하락 전환한 것은 변동성의 확대 국면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투심을 보여준다.

**달러 보합에 의한 선진국 중심의 자산 가격 상승 전환**

미국 등 선진국 증시 중심으로 강세장을 시현한 반면, 코스피 등 신흥국 증시는 약세장을 기록했다. 또한, 미 국채 시장금리는 상승세에 제어를 가하고 하락 전환에 성공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발 쇼크로 인해서 금리 낙폭은 제한되는 결과로 마감했다. 반면, 기업 이익 창출력과 재무건전성 이슈는 큰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서 국채 금리 하락 전환에 의한 크레딧 강세장은 보다 두드러졌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모두 돌파했고, 시장금리 하향 조정 흐름에 힘입어 귀금속 가격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달러는 주간 종가 기준 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그간 절하 폭이 컸던 타 기축 통화 및 원화의 제한적 절상을 견인했다. 부동산 시장은 재차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서울의 매매가격 하락 압력이 약화되면서 상승 전환 중이며, 전국적인 전세가격 상승 폭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해결 난망한 유가**

중동 전쟁이 중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재확대됐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심리적 저항성인 100달러 초반으로의 상향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의한 공급 및 생산 밸류 체인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100~110달러로의 급등이다. 이란은 배럴당 1달러의 비용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에 부과하겠으며, 통과 여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적인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이는 즉, 공급의 원활함이 저해되는 동시에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곧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전개됨을 의미한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재긴축 모드를 자극할 수 있기에 자산시장의 약세를 견인한다.

**크레딧 시장의 강세장이 시사하는 증시의 향방**

그럼에도 시장금리의 하향 조정이 채권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것은 그간 투심의 악화로 인해 경색된 자금의 이동이 제한적이나마 진행되기 시작함을 시사한다. 금리 하락 전환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대화가 병행되는 가운데, 종전의 희망이 점진적으로 다가오는데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또한, 금리 하락에 이어서 크레딧 시장 중심의 강세장이 나타나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점은 경기 침체보다는 기업의 사업 영위 능력 및 체력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향후 전쟁의 마무리 국면 이후 압도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이는 미국 빅테크 중심의 증시 강세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달러 수요를 지탱하는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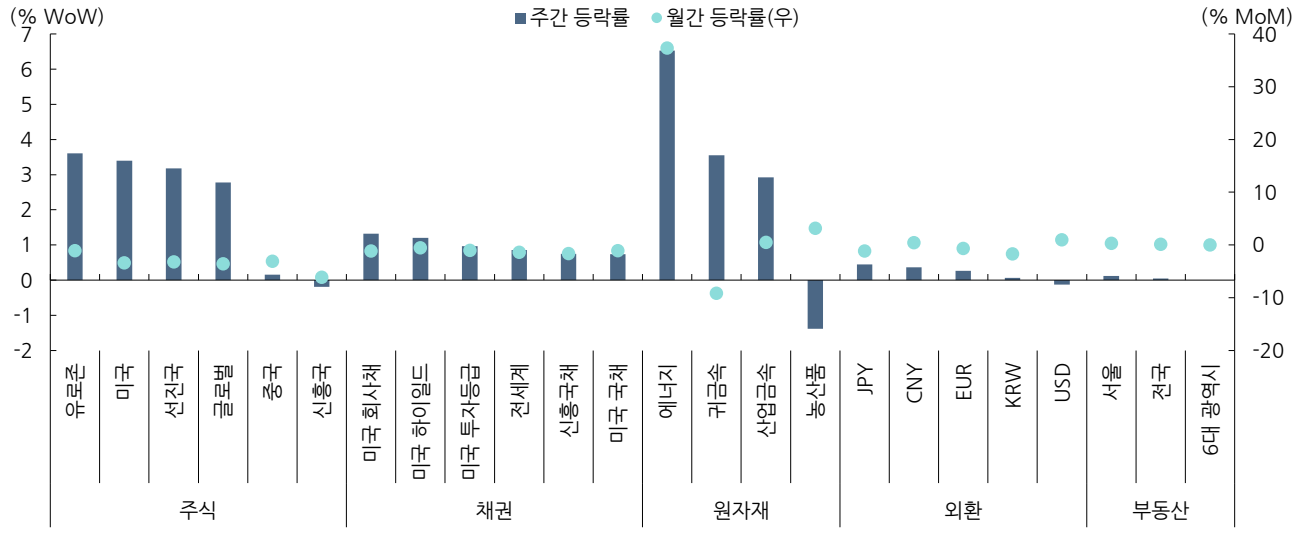
다만, 금리의 하락 및 크레딧 시장의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는 여전히 100pt 내외에서 등락 중이다. 전일 트럼프의 연설 쇼크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더 급등하지 않고 상단에 걸린 부분은 금리 하방 흐름과 이어지나,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달러의 기본적인 수요 이상으로 정치 리스크에 의한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지는 달러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월 2주차 전략**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한 달러 포지션 확대 차원의 위험자산 선별적 투자**

4월 2주차에는 미국의 PCE, CPI 등 주요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금일 밤에는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 물가와 고용은 연준의 양대 책무와 관련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하나, 현 국면에서는 동 지표의 해석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둔화 전환 리스크 확대의 상반된 요인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곧 유가를 최상위 변수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이는 곧 트럼프와 이란의 출구 전략이 원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쟁이 종료된다면, 시장 참가자는 반색하겠으나 이에 대한 방식, 시점 판단 등은 미지의 영역이다. 시장금리의 점진적 하락이 나오겠으나,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밸류에이션 적용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로 나서는 것은 아직 금물이다. 오히려 트럼프의 압박 등이 거세질 때 시장 변동성에 의한 가격 하방이 극심한 타이밍을 활용하는 간결한 트레이딩이 좋을 수 있으나 동일한 패턴의 반복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두텁게 하고, 달러 포지션 확대 차원에서 위험자산의 선별적 투자를 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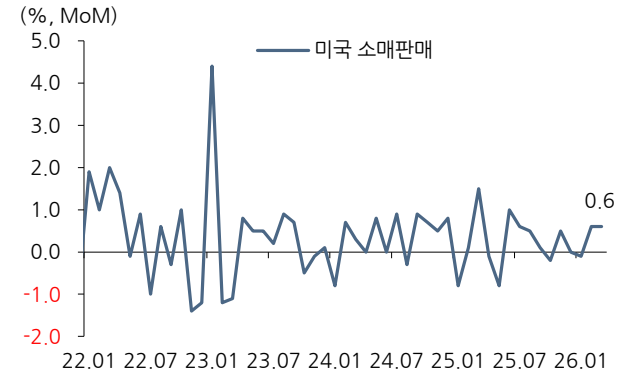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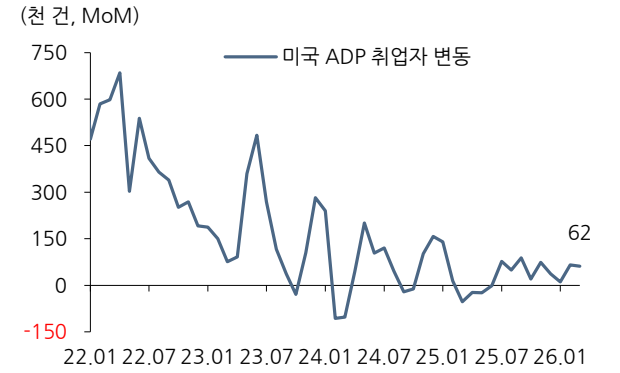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2월 소매판매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 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상승하며 예상치(+0.5%)와 전월치(-0.1%)를 모두 상회
- 헬스케어(+2.3%)와 자동차 및 부품(+1.2%)이 전체 소매판매 증가를 견인했으며, 온라인 판매(+0.7%),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0.5%) 부문 또한 기여
- 반면, 가구 및 가정비품(-1.0%), 식품 및 주류(-1.0%) 부문은 감소
- 연초 소득세 환급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전체 소비 촉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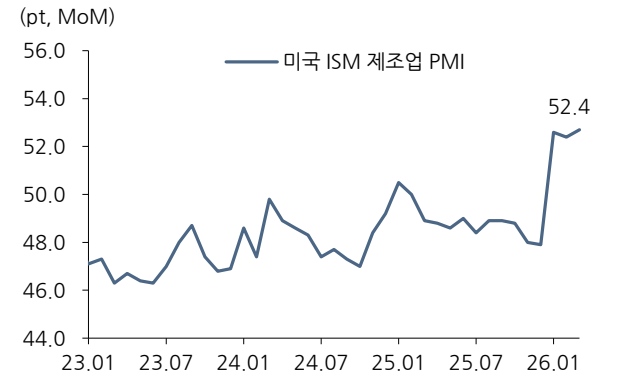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3월 ADP 민간고용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된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고용은 전월대비 6만 2천명 증가하며 예상치(+4만명)를 상회
- 2월 민간고용은 6만 3천명에서 6만 6천명으로 증가폭 상향 조정
- 세부적으로 교육·보건·의료(+5만 8천명), 건설업(+3만명) 등이 전체 민간고용 증가세를 견인
- 반면 제조업(-1만 1천명), 무역·운송·공공서비스(-5만 8천명) 부문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 확인
-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지표였으나, 일자리 증가가 보건·의료를 포함한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그림 3. 미국 3월 ISM 제조업 PM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서 발표된 미국 3월 제조업 PMI는 52.7pt로, 예상치(+52.5pt)와 전월치(+52.4pt)를 모두 상회
- 가격지수는 78.3pt로, 전월대비 7.8pt 급등하며 상승세 지속
- 고용지수는 48.7pt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은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 활동은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가격지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 1. 주식

## 국내 증시: 종전 기대감에 출렁이는 투심

**트럼프의 말에 휘둘린 국내 증시**

KOSPI는 전주대비 -3.77% 하락한 5,234.05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7.46% 하락한 1,056.34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중동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국내 증시 전반에 크게 작용하며 변동성을 높였으나, 이란 타격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대응이 예고되자 재차 하락하며 약세 마감했다. 전주와 동일하게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은 미국-이란 간 협상 기대감과 최악의 시나리오인 지상군 투입에 쏠린 가운데, 고유가 지속에 대한 타격보다는 트럼프와 이란의 공식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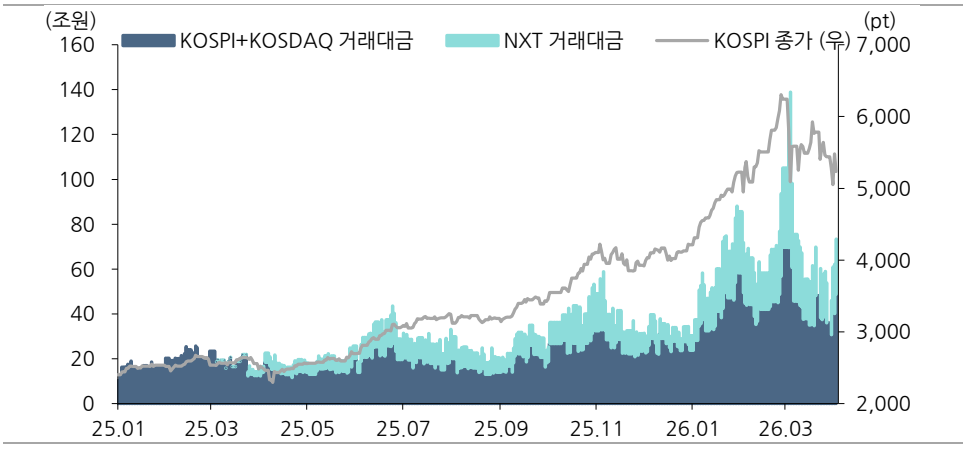
**종전 기대감 희비 교차, KOSPI & KOSDAQ 4/1 매수 이후 4/2 매도 사이드카 발동**

투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31 "이란을 떠날 것"이라는 조기종전 발언을 내놓자 종전 기대감은 확대되며 증시가 크게 반등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4/2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라고 밝히자 크게 실망하며 증시는 하락전환하며 급락하였다. 금주에만 총 4번(KOSPI 2회, KOSDAQ 2회)의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지속되는 증시에 대한 피로감은 4/2 개인투자자의 급매를 유발시켰고 $100를 재돌파한 유가는 투심을 더욱 약화시켰다.

국내 증시의 약세 흐름 속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확인되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KOSPI에서 6조원 가량 매도하였고, KOSDAQ에서는 3,000억원 매수하였다. 반면, 기관계에서는 KOSPI를 약 4.4조원 순매수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IT 가전(+2.0%)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헬스케어(-10.0%), 미디어/엔터(-8.0%), 호텔/레저(-7.8%) 섹터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3월 초 반도체, 건설 등 주도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방산 업종은 금주 초반에는 KOSPI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주 후반 확전 우려에 재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엔터/미디어/레저 등의 업종의 낙폭이 컸던 점과 업종별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 역시 확인된 한 주였다.

그림 1. 25년 이후 국내 증시 거래대금 및 종가 비교




자료: Quantiwise, KRX, 넥스트레이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증시 차주 전망: 변수 제거는 증시 상승 동력

**중동 전쟁의 변수는 4/6 기점으로 시장에 크게 작용할 전망**

차주 국내 증시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강한 타격을 예고한 가운데, 4/6 데드라인 임박에 따른 전쟁 장기화 여부가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겠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임에 따라 주말 간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현재로써는 이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호르무즈를 비롯한 중동전쟁의 장기화가 가장 큰 변수임에 따라, 협상이나 지상군 투입 등 수단과 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은 4/6(월) 전후로 결정될 수 있다.

**펀더멘털 기반 매수세 유입 기대**

차주에는 삼성전자 1Q 잠정실적 발표가 4/7 예정되어있고, 4/8 FOMC 회의록 공개, 4/9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있다. 시장참여자들의 시선은 중동전쟁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Base 또는 Bull 시나리오 상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펀더멘털 기반의 매수세를 유발할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4/10 금통위 역시 진행 예정인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은의 진단과 고환율에 대한 대응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중국 증시: 중동 리스크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중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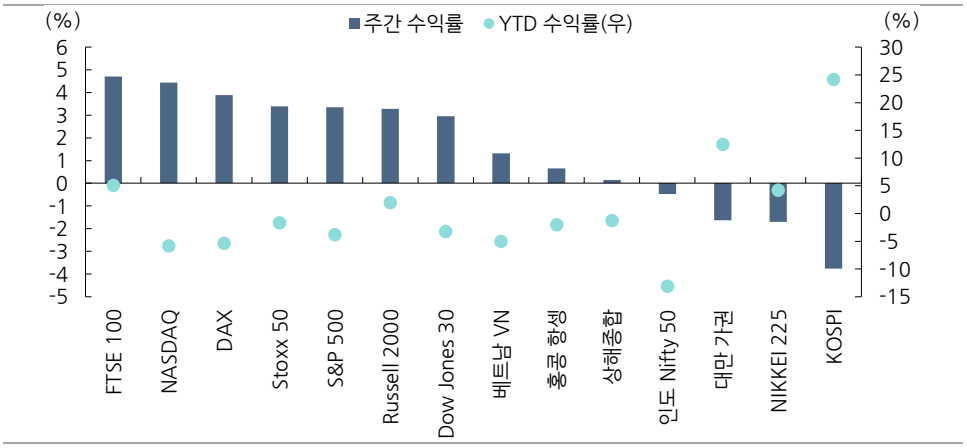
**헬스케어 섹터 반등, 금융주 견조세가 증시 하단을 지지**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0.14% 상승한 3,919.29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주대비 +0.66% 상승한 25,116.53pt를 기록하였다.

상해종합지수는 금주 중동 전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흐름을 보였다. 4/1(수)에는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4/2(목) 트럼프의 강경 발언 이후 반락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섹터는 강세를 유지했고, 헬스케어 및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반등이 이어졌다. 인민은행(PBOC)이 3월 중 단기 오퍼레이션을 통해 8,900억 위안을 회수하고 장기물로 2,500억 위안을 추가 흡수하는 등 수개월간의 유동성 공급 기조를 역전시킨 점은 증시 상단을 제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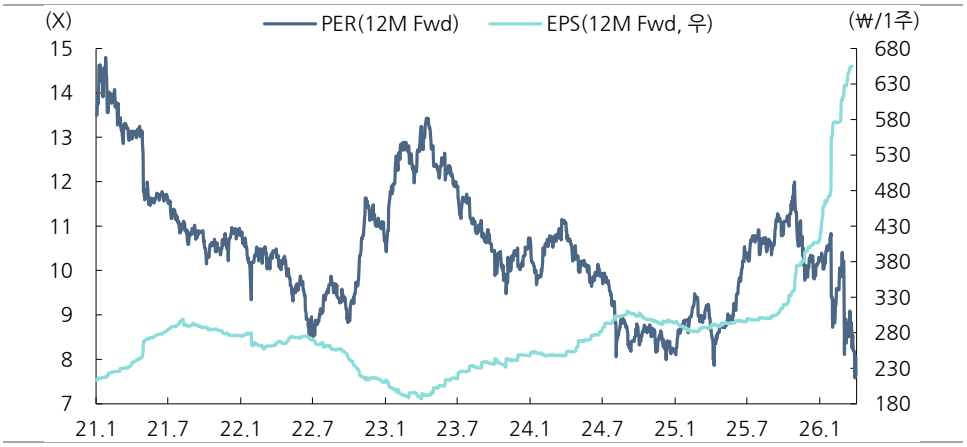
상해 증시는 헬스케어(+4.5%), 커뮤니케이션(+2.4%), 금융(+1.0%) 업종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유틸리티(-5.1%), 정보기술(-2.8%), 에너지(-1.4%)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그림 2.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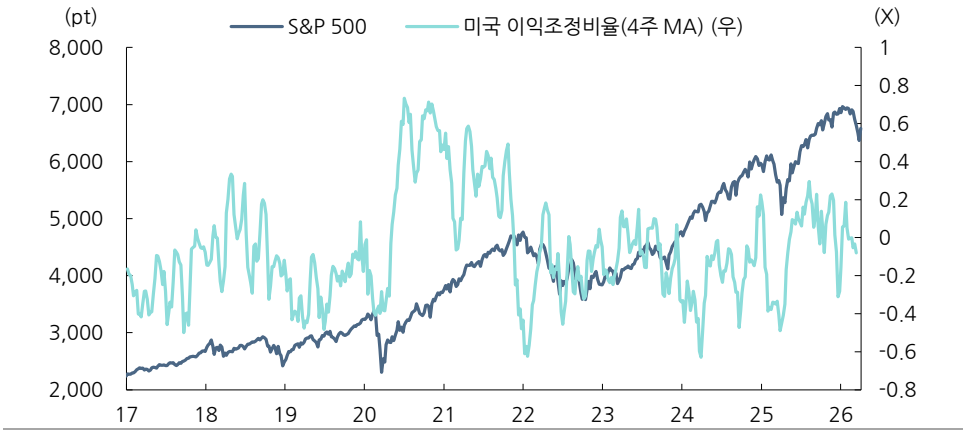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KOSPI 12M Fwd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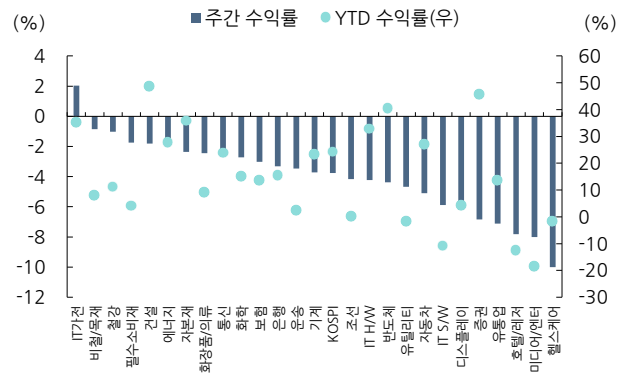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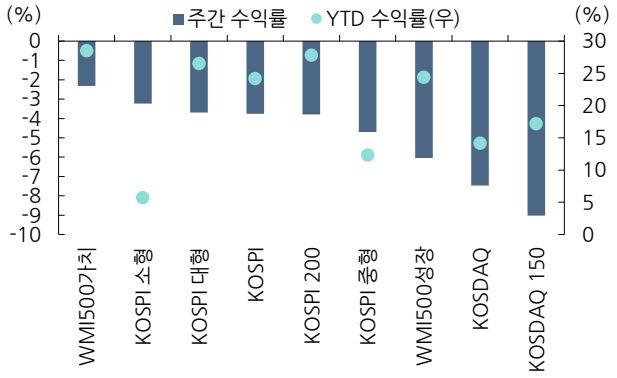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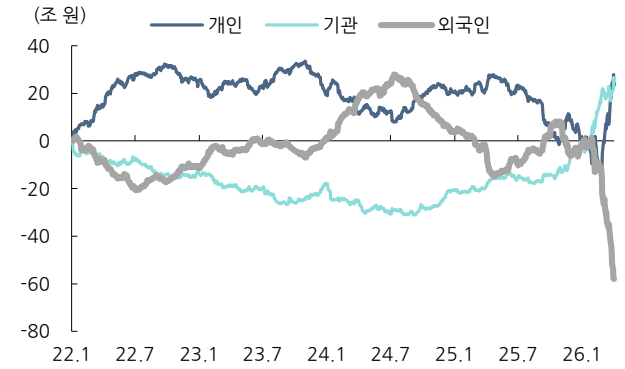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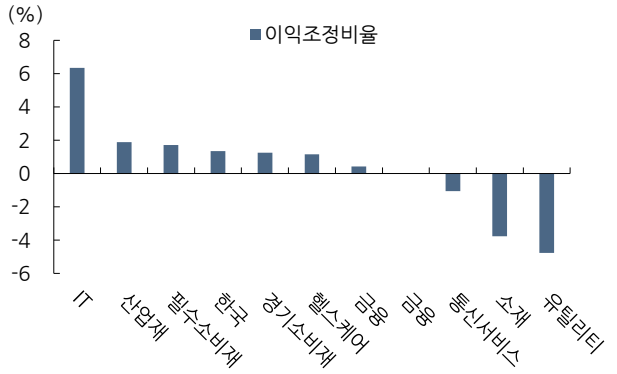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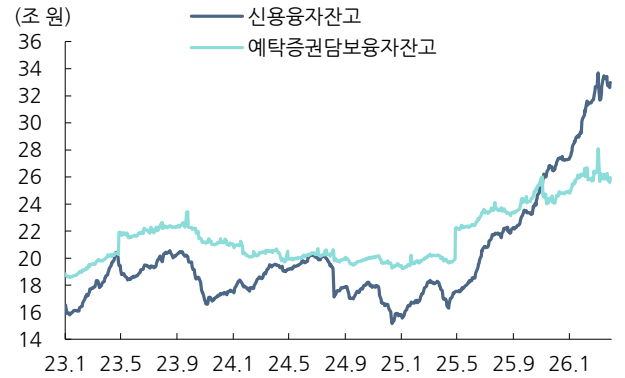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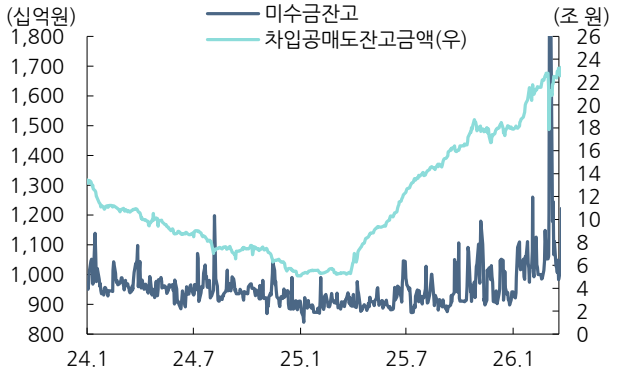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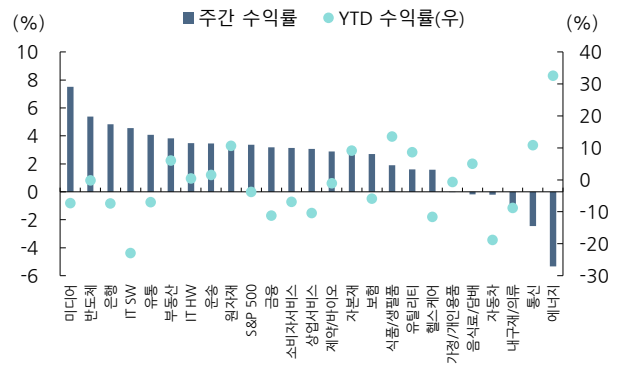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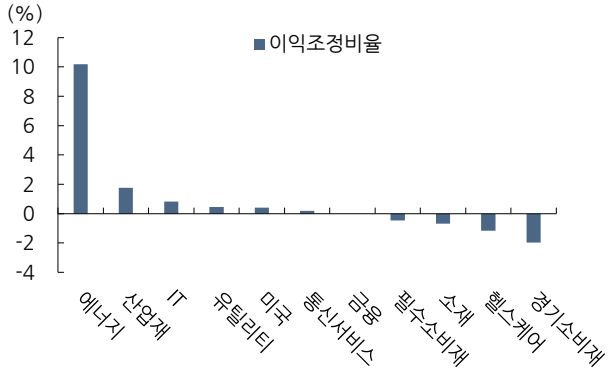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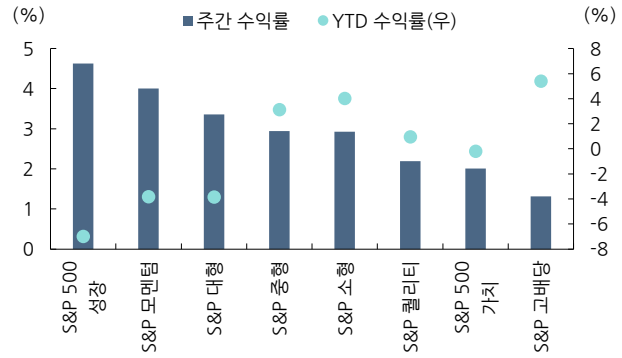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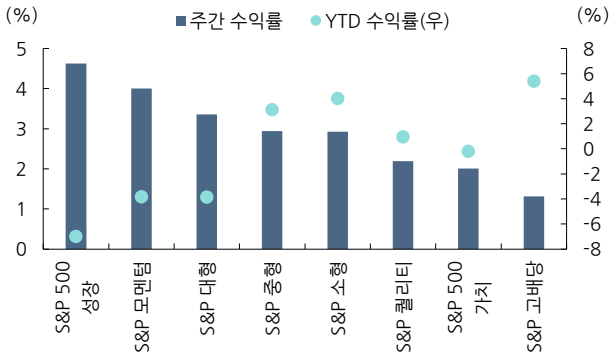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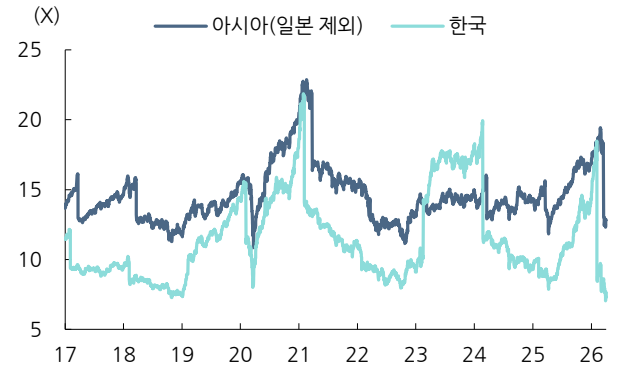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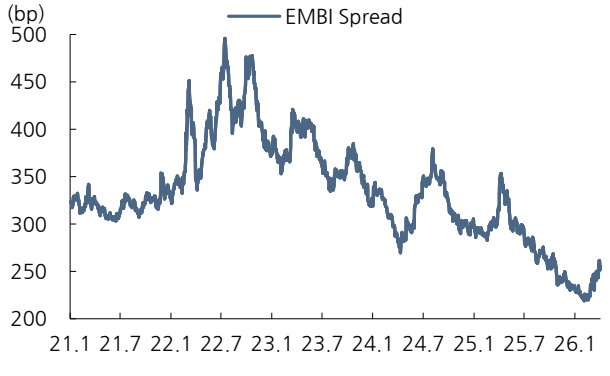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미국 증시 Review: 종전 기대 실망감으로 극단적 변동성을 기록

3월 막바지, 2분기 첫 거래를 시작한 한 주는 전쟁 종전 기대와 군사 확전 우려가 교차하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극단적인 방향 전환이 반복되었다. 이란 대통령이 EU에 종전 의사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2~3주 내 철수를 시사하면서 주 초반 S&P 500이 단 이틀 만에 3% 이상 급등하였으나,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미군 조기 철수 기대감이 소멸되고 다시 글로벌 증시는 하락 전환하였다. 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장 초반 다우가 600포인트 이상, S&P 500이 1.5%, 나스닥이 2.2% 급락한 뒤 이란-오만 간 호르무즈 해협 선박 모니터링 합의 보도에 장중 반전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금요일 휴장으로 목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으며, 3월 고용보고서(비농업 부문 신규고용 57,000명 증가 예상, 실업률 4.4% 예상)는 시장 폐쇄 상태에서 발표되어 차주 월요일에야 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3월 한 달간 S&P 500은 -5%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을 마감하였고, 연초 대비로는 약 -7%까지 후퇴하였다.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는 이미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 영역에 진입하였으며, 세 지수 모두 바닥이라고 여겨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한 상태이다. 주 마지막 거래일의 장중 고저차가 다우 기준 600포인트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전쟁 관련 매크로 요인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업종별로는 간만에 빅테크의 반등이 나오며 IT/기술주와 통신주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오픈AI의 신규 자금 조달 소식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며 메타, 알파벳, 아마존은 모두 반등에 성공했으며, 엔비디아의 마벨 테크놀리지 투자, 샌디스크의 반등이 반도체·스토리지 하위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다. AI CAPEX 감축 우려에도 불구 밸류에이션 매력 및 분기말 숏커버링 수요가 몰린 탓으로 해석된다.

한편,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도 에너지 섹터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시장에서 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지속적 상승 보다는 2~3주 내 상황 마무리 이후 시장의 급반등과 유가의 되돌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전쟁 속에서도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비율 예상 상회

금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수 경제가 단기적으로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ADP 민간고용은 3월 62,000명 증가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였다. 전월의 92,000명 감소에서 반등한 것으로, 노동시장이 아직 붕괴하지는 않았으나 뚜렷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로 컨센서스 +0.5%를 상회하였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0.5%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넘었다. 이란 전쟁 발발 이전의 소비 데이터이기는 하나, 미국 소비자가 전쟁 직전까지 견실한 지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ISM 제조업 PMI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부에서는 관세 정책 변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긴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미 상무부 원유 재고는 직전 주간에 550만 배럴 증가한 4억 6,160만 배럴로, 5년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자급 구조 덕분에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 충격의 직접적 타격을 완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금주 시사점: 모두가 종전 신호에 맞춰 매수를 하려는 상황

금주 시장의 변동성, 방향 전환이 주는 교훈은 결국 지금은 전쟁이라는 단일 변수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 초반 종전 기대가 부각되자 S&P 500은 단 하루 만에 3% 이상 급등하며 수개월치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주 후반 강경 발언이 나오자 장 초반 급락으로 되돌렸다. 나이키의 가이던스 충격도, 테슬라의 인도량 부진도, 의약품 관세 우려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작동하지 못했다. 모든 섹터의 움직임이 전쟁의 진전과 후퇴에 종속되어 있으며, 개별 기업 펀더멘털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역으로 전쟁 종결 시 시장의 반응 속도와 폭이 극도로 클 것임을 시사한다. 종전이 가시화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은 그간 억눌렸던 롱 포지션을 재구축할 것이고, 에너지 프리미엄 해소와 소비 심리 회복이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걸친 리레이팅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그 순간에 시장 밖에 있었다면 복구 불가능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지금은 투자를 유지하되 취약 영역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목할 점은 AI 투자 스토리가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마벨 20억 달러 투자, 인텔의 아일랜드 AI 팹 140억 달러 확장, 오라클의 AI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모두 AI CAPEX 사이클이 지정학적 교란과 독립적으로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가 S&P 500 전체 어닝 성장의 약 39%를 견인하는 구조에서, 분쟁이 종결되면 에너지 비용 하락이 하이퍼스케일러의 비용 구조를 개선시켜 AI 투자 확대에 추가적인 순풍이 된다. 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AI 투자의 전략적 필수성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연초 이후 주요 기술주의 조정으로 'AI 피로감' 우려가 반영된 결과, 현재 진입 가격은 수개월 전 대비 현저히 낮아졌다. 밸류에이션 압축과 펀더멘털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은 중기적으로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그 누구도 전쟁이라는 변수의 해소 시점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해소가 만들어낼 시장 반등의 규모와 속도는 분명하다. 지금은 시장에 남아 있되, 에너지 가격 리스크에 취약한 경기민감 소비재의 비중을 줄이고, 전쟁과 독립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확인되는 AI 반도체 밸류체인과 헬스케어에 무게를 두는 선별적 포지셔닝이 유효하다.

## 차주 핵심 시장 이벤트 : FOMC 의사록(4/8), 3월 PCE (4/9), 3월 CPI (4/10)

### 월요일 (4월 6일): 3월 고용보고서,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반영

월요일 개장은 사실상 이틀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시작된다. 금요일에 발표된 3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컨센서스 57,000명 증가, 실업률 4.4%)의 결과 및 ISM 서비스업 PMI가 월요일에 발표된다(휴장으로 금요일에서 이연). 서비스업은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며, 제조업 PMI가 양호했던 것과 달리 서비스업이 전쟁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주목된다. 항공·여행·숙박 등 서비스 하위 섹터가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만큼, 제조업 대비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수요일 (4월 8일): 3월 FOMC 의사록

수요일 오후에 공개되는 3월 18일 FOMC 회의 의사록은 차주의 가장 중요한 단일 이벤트이다. 연준이 3.50~3.75%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스티븐 미런 이사만이 25bp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한 회의의 의사록이다. 연준이 전쟁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및 여전히 금리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의견 숫자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 목요일 (4월 9일): PCE 물가지수

목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헤드라인 PCE가 에너지발 상승 압력을 보이더라도,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가 안정적이라면 연준의 '인내' 기조가 유지될 근거가 된다. 반면 근원 PCE까지 상승 조짐을 보인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추가적으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 금요일 (4월 10일): 3월 CPI + 미시간 소비자심리

금요일은 차주 최대의 시장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되며, 이는 전쟁 발발(2월 28일) 이후 첫 번째 완전한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이다. 헤드라인 CPI에는 3월 유가 급등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시장의 관심은 그 충격의 크기와 근원 CPI로의 전이 여부에 집중된다.

전쟁 이전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경로에 있었으나, 3월 브렌트 원유의 60% 이상 급등은 이 경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였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CPI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충격이 운송비·식품 가격 등을 통해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파급되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

같은 날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예비치가 발표된다. 전월 확정치는 53.3으로 2025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에서 3.8%로 급등한 바 있다. 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4월 예비치에서 소비자 심리의 추가 악화와 인플레이션 기대의 상승이 확인될 경우, 이는 연준의 정책적 유연성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표 1. MSCI AC World 업종별 주요 지표

| 업종 | 업종별 EPS 변화율 (%) | | | | 컨센서스 추이 (%) | 업종별 수익률 (%) | | | | 지수 추이 (%) |
|---|---|---|---|---|---|---|---|---|---|---|
| | 1W | 1M | 3M | YTD | | 1W | 1M | 3M | YTD | |
| 글로벌(M. AC World) | -0.9 | 1.8 | 5.5 | 7.5 | | 1.4 | -3.4 | -3.5 | -2.9 | |
| 에너지 | 6.0 | 11.1 | 9.0 | 10.0 | | -1.8 | 7.1 | 29.2 | 31.3 | |
| 소재 | -1.6 | 1.5 | 11.1 | 13.5 | | 4.6 | -3.2 | 4.7 | 7.0 | |
| 자본재 | -0.5 | 0.1 | 1.3 | 4.2 | | 1.0 | -4.4 | 3.1 | 6.4 | |
| 상업/전문서비스 | -1.0 | -0.1 | -0.1 | 1.5 | | 2.4 | -7.4 | -13.6 | -13.4 | |
| 운송 | -1.0 | -0.2 | 0.2 | 2.0 | | 1.9 | -3.7 | -0.6 | 1.2 | |
| 자동차/부품 | -1.6 | -0.8 | -1.5 | 0.7 | | -2.1 | -8.5 | -12.4 | -17.1 | |
| 내구소비재/의류 | -0.6 | -1.2 | -1.8 | 0.1 | | 0.6 | -6.3 | -14.7 | -14.3 | |
| 소비자 서비스 | -2.6 | -0.8 | 0.7 | 2.6 | | 0.2 | -5.2 | -11.7 | -11.3 | |
| 소매 | -4.9 | -1.1 | -1.9 | -0.2 | | 0.4 | -5.0 | -12.7 | -9.5 | |
| 식품/필수품 소매 | -2.3 | -0.8 | -0.9 | 1.7 | | 2.5 | 0.9 | 7.9 | 9.9 | |
| 식품/음료/담배 | -1.8 | -0.8 | -0.5 | 0.4 | | 1.6 | -2.8 | 4.5 | 2.1 | |
| 가정용품/개인용품 | -1.9 | -1.0 | -1.6 | -0.7 | | -0.8 | -9.0 | -4.3 | -5.5 | |
|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 -1.5 | -0.5 | 0.1 | 2.0 | | -0.5 | -7.0 | -14.5 | -12.4 | |
|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 -1.9 | -1.1 | -0.6 | -1.2 | | 2.3 | -2.1 | -3.1 | -1.4 | |
| 은행 | -0.6 | 0.1 | 2.6 | 4.6 | | 1.9 | -1.7 | -3.7 | -3.2 | |
| 기타 금융 | -1.3 | 0.2 | 0.6 | 3.3 | | 0.9 | -4.1 | -12.7 | -12.1 | |
| 보험 | -0.4 | 0.1 | 1.5 | 3.2 | | 1.4 | -1.0 | -3.7 | -4.3 | |
| 소프트웨어/서비스 | -1.1 | 0.7 | 2.3 | 2.7 | | 1.5 | -8.1 | -22.8 | -24.6 | |
| 기술 하드웨어/장비 | -0.7 | 2.3 | 16.0 | 23.4 | | 0.8 | -1.4 | 5.1 | 2.5 | |
| 반도체/장비 | -0.1 | 10.0 | 30.3 | 35.1 | | 1.5 | -3.5 | 1.0 | 3.6 | |
| 통신서비스 | -1.2 | -0.4 | -3.3 | 3.6 | | -1.5 | -3.8 | 6.6 | 6.5 | |
| 미디어/엔터 | -1.3 | -0.1 | 3.5 | 0.4 | | 4.1 | -5.0 | -10.7 | -9.8 | |
| 유틸리티 | -0.5 | 0.0 | -0.4 | 1.7 | | 3.1 | 0.6 | 9.7 | 9.7 | |
| 부동산 | -1.1 | -0.9 | -17.2 | -17.2 | | 3.3 | -3.7 | 3.8 | 3.7 | |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S&P500 업종별 주요 지표

| 업종 | 업종별 EPS 변화율 (%) | | | | 컨센서스 추이 (%) | 업종별 수익률 (%) | | | | 지수 추이 (%) |
|---|---|---|---|---|---|---|---|---|---|---|
| | 1W | 1M | 3M | YTD | | 1W | 1M | 3M | YTD | |
| 미국(S&P500) | 0.1 | 1.8 | 6.0 | 7.3 | | 1.6 | -3.6 | -4.9 | -5.0 | |
| 에너지 | 6.5 | 11.3 | 7.4 | 7.9 | | -4.0 | 5.1 | 27.0 | 33.1 | |
| 소재 | 1.0 | 2.8 | 9.1 | 10.8 | | 3.1 | -0.7 | 5.8 | 9.2 | |
| 자본재 | -0.9 | -0.9 | 1.7 | 3.0 | | 2.1 | -3.5 | 6.1 | 7.9 | |
| 상업/전문서비스 | -1.1 | -1.1 | 0.0 | 0.9 | | 0.4 | -10.0 | -12.7 | -12.4 | |
| 운송 | 0.2 | -1.1 | 1.9 | 3.3 | | 2.0 | -4.3 | -2.2 | 0.3 | |
| 자동차/부품 | -1.6 | -1.6 | 5.1 | 6.9 | | 2.2 | -5.7 | -12.8 | -20.4 | |
| 내구소비재/의류 | -0.6 | -1.6 | 1.5 | 2.6 | | -2.1 | -10.3 | -11.5 | -8.0 | |
| 소비자 서비스 | -0.2 | -0.3 | 1.8 | 3.2 | | 0.0 | -6.5 | -9.5 | -8.9 | |
| 소매 | -0.7 | -0.6 | 1.4 | 2.9 | | 1.3 | -4.4 | -11.6 | -7.3 | |
| 식품/필수품 소매 | -0.3 | -0.2 | 1.3 | 2.1 | | 1.3 | -0.2 | 8.3 | 11.6 | |
| 식품/음료/담배 | -0.1 | -0.1 | 0.8 | 1.5 | | 0.3 | -4.2 | 5.3 | 3.3 | |
| 가정용품/개인용품 | 0.0 | 0.1 | 1.2 | 1.6 | | 0.9 | -7.4 | 0.4 | -0.8 | |
|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 0.0 | -0.1 | 1.4 | 2.6 | | -0.9 | -7.4 | -14.6 | -12.4 | |
|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 0.0 | 0.1 | -0.1 | -0.1 | | 2.6 | -1.7 | -1.5 | -0.7 | |
| 은행 | 0.1 | 0.1 | 3.8 | 4.9 | | 1.9 | -0.1 | -10.1 | -9.7 | |
| 기타 금융 | 0.2 | -0.3 | 2.1 | 3.3 | | 0.3 | -4.5 | -13.4 | -13.0 | |
| 보험 | 0.0 | 0.0 | 1.7 | 2.6 | | -0.2 | -4.6 | -6.1 | -7.5 | |
| 소프트웨어/서비스 | -0.1 | -0.1 | 3.2 | 4.3 | | 0.6 | -9.2 | -23.0 | -25.1 | |
| 기술 하드웨어/장비 | -0.9 | -0.7 | 9.2 | 10.3 | | 1.5 | -0.7 | 3.5 | -1.2 | |
| 반도체/장비 | 1.0 | 11.8 | 26.8 | 30.7 | | 2.7 | -3.2 | -1.8 | -2.1 | |
| 통신서비스 | -0.1 | -0.2 | 0.2 | 10.7 | | -2.6 | -5.1 | 12.8 | 12.3 | |
| 미디어/엔터 | -0.6 | -0.5 | 3.0 | -0.5 | | 5.0 | -4.8 | -8.6 | -7.7 | |
| 유틸리티 | 0.1 | 0.0 | 1.8 | 2.5 | | 1.6 | -1.2 | 9.8 | 7.6 | |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2. 채권

## 종전 기대감과 WGBI 편입으로 안정세를 보인 국내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은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 및 WGBI 편입 기대감에 강세 시현**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정부의 채권시장 정책 기대감 및 대외금리 하락에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약세 전환했다. 주 초반에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의지에 강세를 시현했다. 주 중반에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신현송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의 발언에 강세를 보였으나 달러-원 환율 상승 영향에 강세폭이 제한됐다. 주 후반에는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 및 WGBI 편입 첫날 외국인 자금 유입에 강세를 보이다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발언에 약세로 돌아섰다. 주간 커브는 불-플래트닝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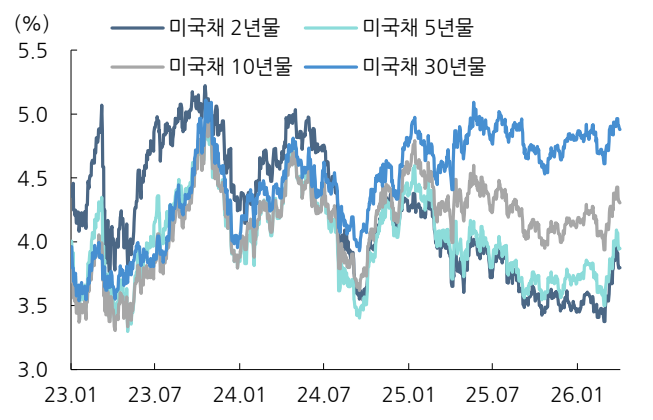
**미국 채권시장은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 속 미-이란 전쟁 종전 기대에 강세 시현**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시현했다. 주 초반 유가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 속 전쟁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강세를 시현했다. 주 중반에는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지표에 약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에 약세를 보였으나 이란-오만 해협 통행 협의 소식에 강세 전환했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불-스티프닝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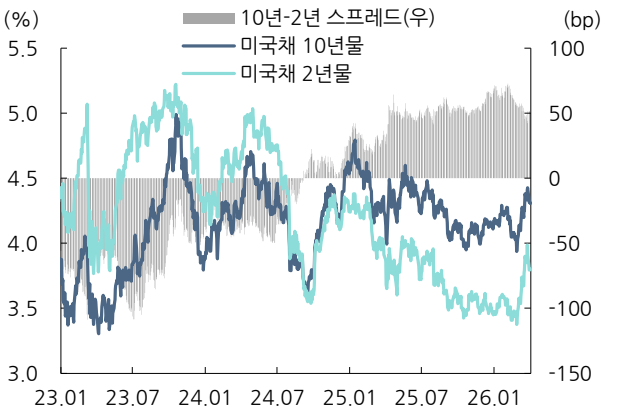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3. 외환

## 환율 급등 이후 소폭 진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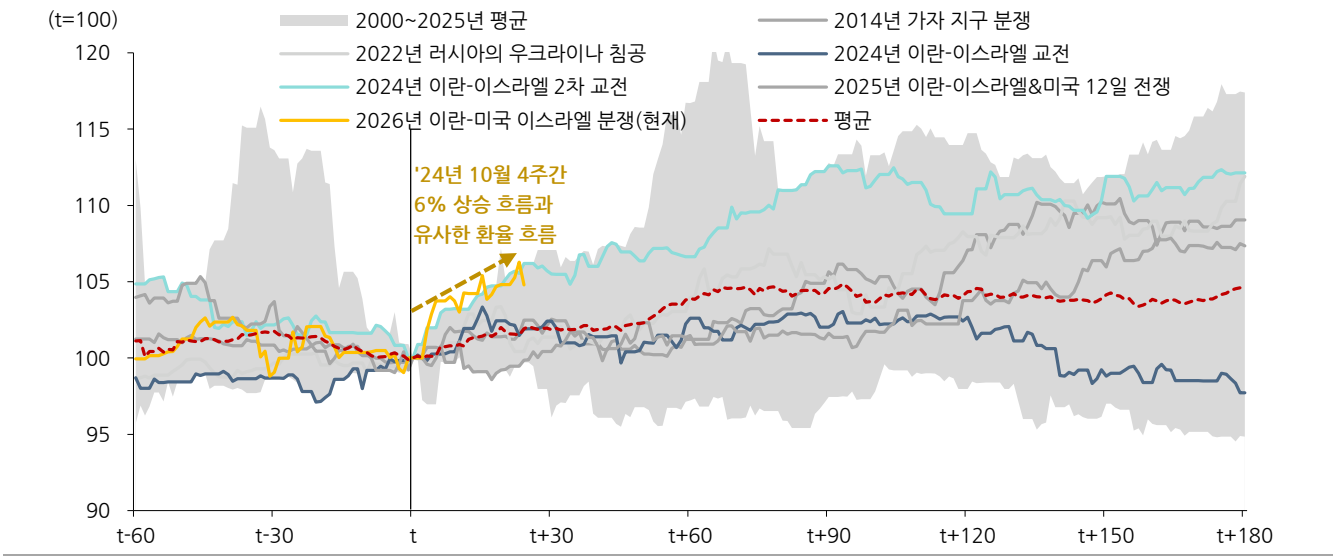
**금 가격 역대급 조정 발생**

3월 31일, 달러/원 환율은 1,530.1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후 중동 상황 진정을 반영하며 소폭 반락하는 흐름이다. 당사는 4주 이상의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트렌드를 감안할 때 달러/원 환율의 상단을 1,525원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상단 전망 근거는 과거 트렌드에 기반한다. 2000년 이후 중동 무력 이슈 발생 직후 달러/원 환율은 30일간 평균 2%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단기간에 환율이 가장 급등한 사례는 '24년 10월 이스라엘-이란 교전 시점으로 4주간 약 6%의 상승을 나타냈다. 이번 전쟁은 과거 대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높아, 최대 상승폭인 6%를 전쟁 개시 시점(2/28, 1,439원)에 대입하여 4주 후 환율 상단을 1,525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전쟁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이 과거 대비 확대된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 여타 중동 무력 분쟁과 달리 이번 전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외환시장에 한층 큰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큰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5개 휴전 조건과 이란 측의 5가지 요구사항은 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양측의 양보 없이는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한 구도다. 다만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보다 큰 쪽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종전 선언 이후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따라서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설령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합의 없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즉각 해제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 해군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병력이 중동으로 추가 전개 중이며, 예측시장에서는 4월 말까지 미군의 이란 지상 투입 확률을 과반을 상회하는 56%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순매도를 촉발하고 환율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중동 무력 이슈별 달러/원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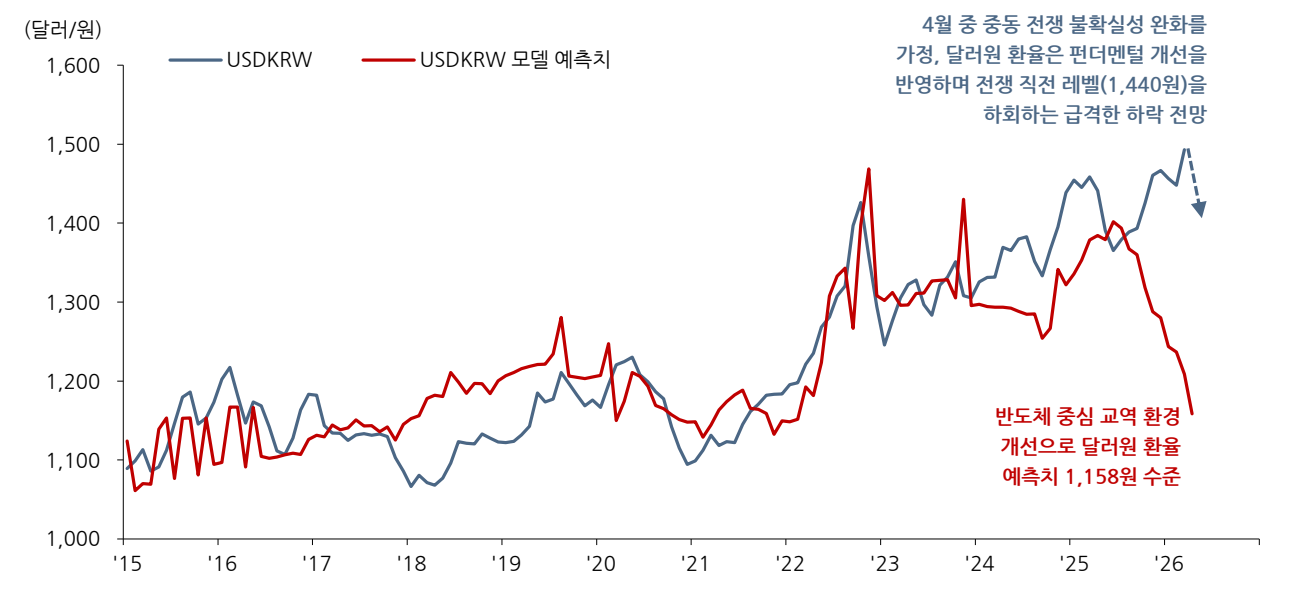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펀더멘털 개선 고려, 4월 중 종전 시 강한 환율 되돌림 하락 전망

환율 안정의 선결 조건은 중동 전쟁 상황의 완화다. 현재 확전보다는 진정 또는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는 흐름이나, 미국과 이란 간 실질적 협상 소식은 아직 부재하여 중동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가 가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동 상황을 차치하고, 6개월 평균 무역수지와 한미 기준금리차를 활용한 당사 환율 모델 기준으로 보면, 현재 달러원 환율의 고평가(원화 저평가) 폭은 매우 크다. 특히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1분기 누적 무역수지가 +4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직전 10년간 연평균 흑자 규모인 +438억 달러를 이미 상회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기준금리차가 -1.25%p로 유지되는 가운데, 3월 257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반영할 경우 3월 적정 환율은 1,158원대로 산출된다.

물론 ①3월 무역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에는 중동산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였고, ②3월 이후 상승한 유가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 수준의 흑자 유지는 쉽지 않다. 더불어 ③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매도, 대미 투자 증가 등 수급 측 환율 상승 요인이 반영되면서, 2025년 이후 모델 추정치가 실제 환율을 지속적으로 과소추정하는 기조가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200원 내외의 수급 프리미엄으로 판단되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펀더멘털 대비 원화가 뚜렷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특정 환율 레벨을 목표로 하지 않으나 최근과 같은 환율 쏠림 국면에서는 환율의 하락폭을 키우는 방향의 외환시장 미세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을 통한 전략적 환헤지 비율 확대 등 정책적 공조가 병행될 여지도 크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4월 중 종전을 가정할 경우, 1,530원 선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 전쟁 발발 직전 레벨인 1,440원을 하회하는 급격한 되돌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림 2. 월평균 달러/원 환율 추이 및 모델 예측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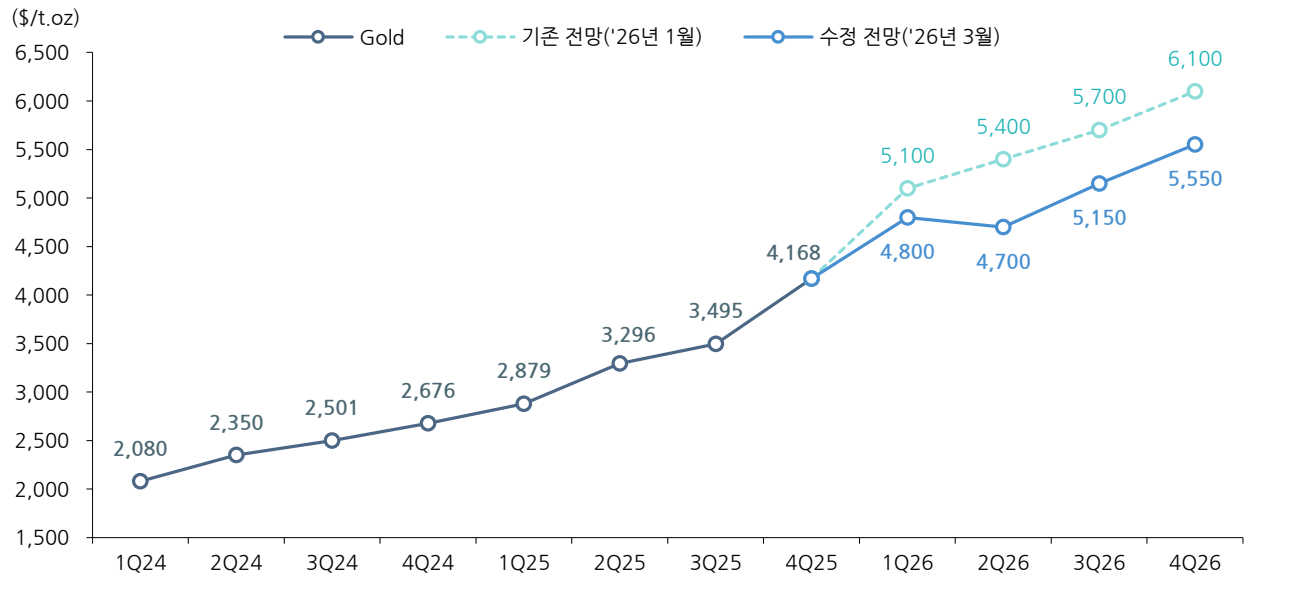
# 4. 원자재

## 이번 전쟁은 장기로 보면 금 매수 기회

전쟁으로 인해 낙폭을 키운 귀금속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금 가격의 반등 선결 조건은 중동 전쟁의 종식과 유가 안정이다. 다만 양측 의견의 간극이 크기에 종전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면인 만큼, 금 가격이 단기간에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 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전쟁이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입 가속화라는 구조적 상승 동력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달러 준비자산의 정치적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2~'25년 중앙은행 금 순매입은 분기 평균 275톤으로 과거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IMF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러-우 전쟁 직전 60.0%에서 '25년 3분기 56.9%까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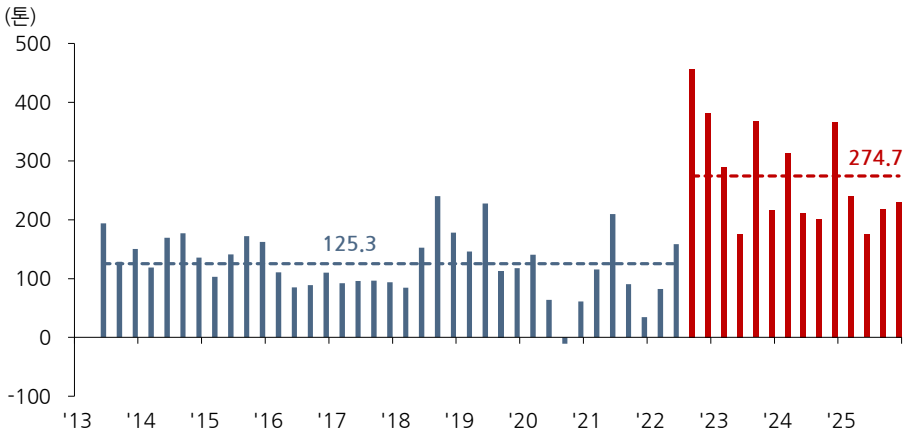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전쟁을 개시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높다. 러-우 전쟁이 달러 표시 자산의 제재 리스크를 각인시켰다면, 이번 전쟁은 미국 스스로가 군사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켰다. 서방 동맹국 입장에서도 그린란드 이슈 등 지정학적 갈등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달러 의존도 축소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될 수 있다. WGC 서베이에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95%가 '26년 금 보유량 확대를 전망했으며, 신흥국과 선진국 중앙은행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당사는 이번 금 가격 조정 폭이 컸으나, 여전히 역사적 상승 랠리의 평균 경로 위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며, 장기 상승 전망을 유지한다. 다만 전쟁 이전 제시한 유동성 확장 환경 기반 금 가격 전망치 대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2026년 금 가격 전망치를 $5,500/t.oz(기존 $6,100/t.oz)로 하향 조정한다.

그림 1. 분기별 금 가격 추이 및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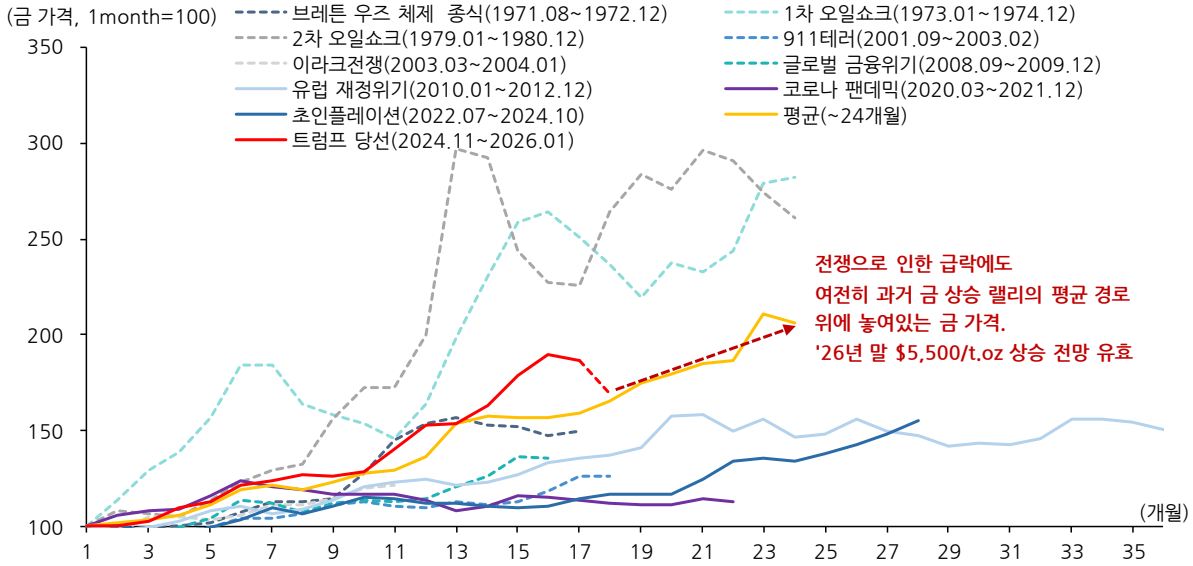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분기별 중앙은행 금 순매입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금 상승 랠리 역사적 금 상승 랠리와 유동성 효과를 고려한 금 가격 예상 경로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5. 부동산

## 비(非)한강벨트 중심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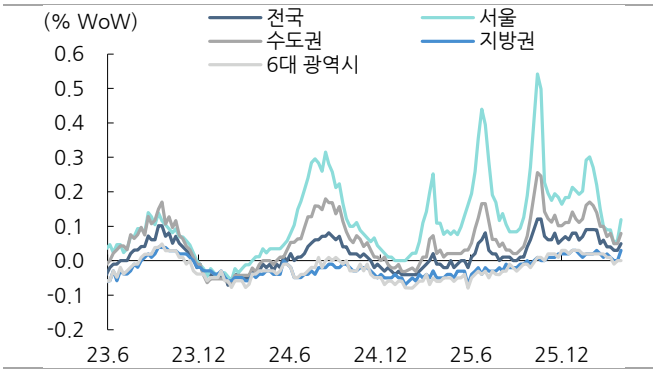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4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매매가격은 0.12% 상승하며 전주(0.06%) 대비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40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3월 초 시세 대비 10~15% 할인된 급매물을 소화한 뒤 약간의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한편,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비(非)한강벨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매매 중 15억 이하 비중이 80%를 넘어섰고, 14억 9천만원대 '턱밑 거래'는 전년 대비 3.6배 급증했다. 한편 4/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양도세 중과와 맞물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한층 강화되었다.

**서울 중저가 실수요 아파트 단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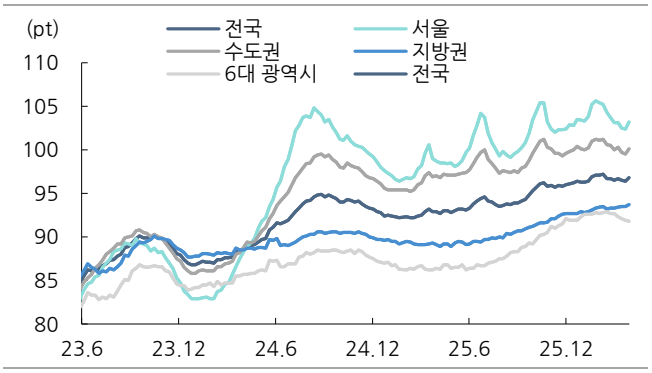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98개를 기록하며 전주 89개 지역 수 대비 증가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02%로 전주 -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강북(+0.18%)의 경우 성북구(+0.27%), 서대문구(+0.27%), 중구(+0.26%) 등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06%) 역시 강서구(+0.27%), 관악구(+0.26%), 구로구(+0.24%) 등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인천(-0.02%)의 경우 연수구(+0.05%), 부평구(+0.01%)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경기권에서는 수지구(+0.36%), 동탄구(+0.34%) 등 용인·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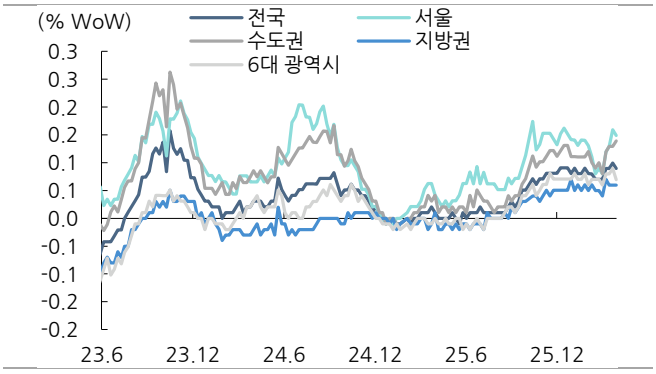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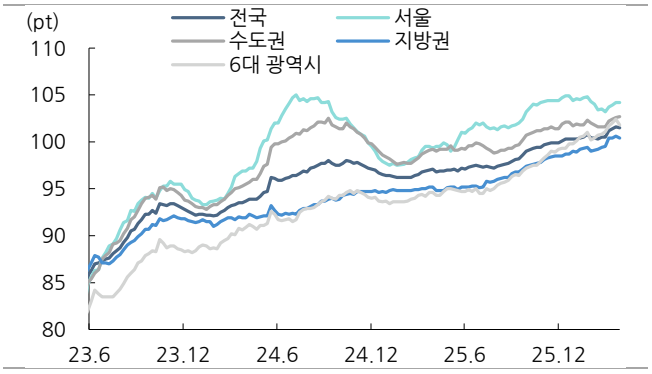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